

공대생의 '진정'한 즐거움: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학생들의 서사적 정체성과 가치 체계에 관한 연구[■]

김효민* · 조희수**

■ 이 논문의 작성은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지만, 논문에 필요한 생각을 정리해나가기까지의 시간은 3년이 걸렸다. 인터뷰에 응해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준 학생들, 원고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조언해 주신 김명자, 김성은, 김태호, 고 변중남, 송성수, 이우창, 정준영, 정한별, 제갈춘기, 한경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UNIST 기초과정부 조교수 전자우편: khyomin17@unist.ac.kr

** UNIST 생명과학부 전자우편: btween77@unist.ac.kr

이공계 대학생, 이른바 공대생은 한국 대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 세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청년 세대를 '평범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열정노동'을 수행하는 '진정'한 생존주의자로서 문제화하였다. 이들은 '자신을 초월한 더 큰 존재와 관련 속에서 자신의 삶의 행로를 위치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청년 세대, 특히 공대생들이 수행하고 서사화하는 것이 가능한, 당장 눈앞의 생존 가치를 대체할 만한 가치란 있는 것인가? 생존 가치에 붙잡히지 않는 가치는 (만약 있다면), 어떤 기제와 과정을 통해 공대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없는 것이 되는가? 우리는 한 지방광역시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들을 소개하겠다. 이들은 아직 본격적인 과학기술 연구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모두 연구자로서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대, 두려움, 혼란, 욕구, 선(the good)에 대한 지향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2017년 한국이라는 특정한 시공간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가용한 재고 지식'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리는 인터뷰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세 가지 주제—그다지 나쁘지 않은 삶, '진정한 즐거움, 개발민족주의에 대한 반감—에 관해 분석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어 하는 연구를 행하고 그러한 연구의 비의도적 부산물을 통해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변형된 개발민족주의가, 공대생의 자기답게 되기와 선(selfhood and the good)을 연결 짓는 서사 형성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주제어 | 청년 세대, 정체성, 공대생, 생존주의, 개발민족주의

1. 서론

“제가 동기들을 봤을 때 가장 슬펐던 모습이,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직 자기 취향과 적성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이는 먹었고 취직은 못했고 군대까지 갔다 온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어떤 선택을 하나면 남들이 봤을 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대기업 준비했다가, 공무원 준비하다가, 기사 준비하다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본인 (의 소망)과는 상관없는 것들이니까요. 사실 결과물로만 보면 이 친구는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성적도 잘 나오고 시험도 잘 치고 있고. 근데 항상 불안에 쫓기는 거예요. 그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헤어진 이유가, 여자친구랑 사귀면서 좋아하다보니까 보고 싶어지고 흔들리게 되니까 그 자기의 모습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저한테 '여자친구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지?'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 헤어졌거든요. 헤어진 다음에 왜 헤어졌냐고 물어봤는데 자기 감정이 너무 흔들리니까 그 모습이 감당이 안 되어서 헤어지자 해버렸는데, 그 뒤로 그 친구는 매일매일 그 여자친구를 보고 싶어했어요. 근데도 다시 그 여자친구를 못 사귀더라구요.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됐을까 보면, 주위에서 너는 나이가 있고, 취직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르는데 일단 뛰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인터뷰, 2017.10.12, 생명과학과 학생 A)

“제가 봤을 때 되게 똑똑한 애고 고등학생 때 성적 좋고 난 열심히 하는데 근데 학점이 안 나온대요. 재미가 없대요, 게다가. 근데 이게 (이공계 중심대학에 다니는 게) 지금 너무나 옳은 길이 다 되어버렸잖아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학교고, 기숙사 생활 하고 있고, 이제는 이게 인정받는 길이 되어버렸으니까 되돌아가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는 발악이라고 하면, 저도 그렇기도 했고, 나는 나의 길이, 뭔가 이상한데, 이게 맞는 것? 맞아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휴학을 하고 여행을 가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구요. 저도 그랬고. 뭔가 여기서 멀리 떨어져서 생각을 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인터뷰, 2017.10.12, 화학과 학생 B)

한국의 청년은 왜 불안한가? 청년들이 전 세대보다 나은 삶을 살지 못하고, 온전한 임금소득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그러나 다른 한 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자기주장과 자기표현을 바탕으로 세대의 문제를 정치적 동원의 원리로 만들어내는 변화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어난다(Comaroff and Comaroff, 2000). 또한 자신의 주체성을 자본화하기 위한 자기 계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산해내는 자기 관리가 청년 세대의 규범이 되면서, 인적 자본의 개발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부담감과 그로 인한 불안이 만들어진다는 진단도 나온다(Abelmann, Park, and Kim, 2009). 자기 관리의 부담이란 세대와 장소를 막론하여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겠으나, 오늘날 한국의 청년이 마주하는 문제의 특수성은 노력, 자기 계발, 또는 정치적 연대를 통하여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들의 현실 인식에 있다. 이것은 질식할 것 같은 무력감이나, 발전을 위한 주체가 되라는 호명에 대한 청년 세대의 냉소를 낳고 있다(김학준, 2016; 이우창, 2016).

김홍중(2015)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청년 세대를 '생존주의 세대'로 명명하였다. 그가 논의하고 있는 생존주의의 개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생존'의 의미가 재난 또는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구한다는 본래의 뜻으로부터 확장되어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경연 상황'으로 재구성되었다. 예컨대 이혼은, 부부생활이라는 '서바이벌 게임'에 실패한 것으로 의미화된다. 둘째, 성공과 달리 생존에는 완결이나 도달의 기준이 없고, 생존 이후의 미래는 그저 '더 높은 경연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셋째, 개인이 계발하고 관리하여 게임에 동원해야 할 '자본'에 심적, 감정적, 도덕적 태도가 포함된다. 예컨대 청년 세대는 '자원봉사'를 실천할 때 이를 생존을 위한 '스펙'으로서 해석하여 수행한다. 넷째, 청년 세대에게 생존의 의미는 '성취'나 '야심'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안정'과 연결된다. 다섯째, 청년 세대는 생존을 위해 자아를 포기하거나, 자아를 위해 생존을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놓여있지 않다. 오히려 '열정노동'과 같은 용어가 가리키는 바와 같이, 이들의 '생존주의적 진정성'의 추구는 자아정체를 표현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사회적 통제에 순응하는 과정으로서 이루어진다. 이상의 다섯 가지 논의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바는 명확하다. 생존주의를 받아들인 개인에게 생존의 완성, 달성, 대안, 외부, 초월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종렬(2017)은 청년 세대의 '생존주의'에 대한 김홍중(2015)의 논의가 '실제로 당장 눈앞의 생존 가치에 붙잡혀서 아등바등' 살고 있는 지방대생들에게 사회학을 가르치는 그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9급 공무원이 되어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의 목표인 학생들에게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

는 것일까?'라는 자괴감을 주는 것이었다고 표현하였다(최종렬, 2017: 244-245). 반면 신자유주의 경쟁체제 아래에서 행위의 진정성을 상실한 속물적 인간(김홍중, 2007)과 같은 더 이전의 청년 세대 담론은 수도권 중심으로 만들어져, 지방대생을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자신에게 설득력을 갖기 힘들었다고 한다. 생존주의와 스노비즘의 간극 또는 점점에 대해서는 뒤의 절에서 논의하겠으나, 여기서 우선 언급해두고 싶은 것은 청년 세대에 대한 더 세밀한 연구의 필요성이 기존의 연구에 의해 이미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대학생들의 다수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2016년 4년제 대학 지역별 입학정원(전체 325,821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소재 대학의 비율은 22.4%, 서울외 수도권 13.8%, 지방광역시 23.9%, 광역시 외 지방이 39.9%를 차지한다(대학교육연구소,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생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며, 청년 세대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은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최종렬, 2017). 서울소재 대학과 지방소재 대학의 차이를 넘어, 지방의 대학 간에서도 어떠한 차이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인식되고 있는지에 주목하는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

다른 한편 주목해볼 만한 사회적 현상은 한국 대학생의 상당수를 이공계 대학생이 차지하게 된 변화이다. 2015년 교수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2014년 공학계열은 전체 입학정원의 25.1%, 자연계열은 12.7%를 차지하였다. 1981년 공학계열과 자연계열의 전체 입학정원 내 비율은 19.5%, 15.4%였다.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을 통해 공학계열이 2017년 입시까지 1만명 늘면, 전체 입시 정원의 29.5%를 공학 계열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교수신문, 2015.03.16). 또한 2016년 대학교육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같은 해

이른바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의 입학정원은 한국과학기술원 970명, 광주과학기술원 200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0명, 울산과학기술원 360명이다. 이들은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르는 '다른 법률 근거 설치 대학'으로서 4년제 대학 지역별 입학정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지방 소재의 대학이지만 학생들의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대학들로서, 이른바 이공계열의 대학생들(이하 '공대생')이 청년 세대이자 예비 과학기술인으로서 갖고 있는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한 장소로서 고려될 수 있다.

2. 연구 질문 및 선행연구

공대생의 정체성 논의에 앞서 우선 한국 청년 세대의 정체성에 관한 최근의 논의들을 살펴보자. 최종렬(2017:255)이 김홍중(2007)의 속물 논의에 표한 의구심은 그가 만난 지방대의 청년들이 '동물과 속물이기는커녕 우선 너무나 착하다. 가족과 친구에 충실하다. 너무나 관계 중심적이다.'라는 인상과 연결된다. 그에게 지방대의 청년들은 자신의 내면을 기만적인 '전시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 '진정'하게 착해 보인다. 이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최종렬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주체' 담론, 다시 말해 각종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경제적 성공을 희망하는 기업가적 주체로서의 자아를 조형하는 자아경영 담론이 지방대 청년의 모습을 분석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지방대생의 사회관계망에 들어오는 것은 기업도 소비시장도 아닌 가족, 친구, 대학 동료와 선후배 등을 포함

하는 일차집단이라는 것이다.

서동진(2010)이 논의하는, 자아를 기업화하고 자기를 통치하기 위해 다양한 테크놀로지(예컨대 일지 쓰기나 심리 분석)를 생산, 동원, 활용, 응용하는 주체와 비교해보아도, 최종렬(2017)의 서사분석에서 나타난 지방대생들은 대단히 '관계 중심적'이다. 이들은 김홍중(2009:4)이 논의한 바와 같은, '승자독식, 무한경쟁, 적자생존의 유사-자연적 정글로 변화한 사회'에서 자신의 '생존'을 '모방되고, 칭송되고, 존경받아야 하는 업적으로 과시'하거나 '성과와 부유와 건강과 명예를 동시에 구가하는 새로운 영웅의 현상인 생존자'가 되고자 하는 주체와 다르다. 지방대생들의 자기서사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거나, '튀지 않고' '주변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것이 목표라는 형태로 발화되며, 여기서 경쟁 상황을 전제하는 기업가적 주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속물적인 주체, 다시 말해, 가치를 진정하게 추구하는 대신 오직 경제적 성공을 위한 도구로서 자기계발에 몰두하여 내면을 '전시'하는 기업가적 주체가 되는 것은, 애초에 경제적 성공을 목표로 삼지 않는 지방대생들이 선택하는 경로가 아닌 것이다. 여기에서 최종렬(2017)과 김홍중(2015)의 청년세대 논의를 잇는 접점이 나타난다. 지방대생은 경제적 성공을 위해 자기 통치를 도구화하거나 내면을 기만적으로 전시하지 않고 오히려 '진정'하다. 그런데 이는 김홍중(2015)에 따르면 '열정노동'을 통해 내면적 가치와 사회적 순응을 동시에 추구하는 '생존주의 세대'의 공통된 특성이다. 또한 생존가치에 청년세대가 붙잡힌 사회에서, 지방과 수도권 청년은 모두 '특별한 성공이나 대단한 성취'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렬(2017)과 김홍중(2015)이 바라보는

청년세대는 다르다. 김홍중(2015)이 논의하는 '생존주의적 진정성'의 추구란 끝없는 생존 게임에서 '낙오'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높은 경연장'으로 나가기 위해 분투하는 자아가 '진정성'있게 사회적 통제에 순응하는 과정이다. 반면 최종렬(2017)의 서사분석에 나타난 지방대생은 생존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분투'하지 않는다. 지방대생의 목표는 평범한 가정 또는 유사가족적 관계망 속에서의 삶이다. 경쟁에 뛰어들어도 성공하기 힘들다는 체감을 공유하는 (유사)가족적 관계망 속에서 지방대생은 '튀는 행동'을 하지 않고 '중간쯤 성과'를 지향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 아예 뛰어들지 않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지방대생은 생존주의자와 다르게 '적당주의' 집단 스타일을 형성한다는 것이 최종렬의 주장이다.

그러나 여기서 최종렬(2017)과 김홍중(2015)의 청년 세대 논의가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진정성'에 대한 강조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최종렬(2017:285)에 의하면 유사가족적 관계망 속에 머무르는 것을 지향하여 자신의 행동을 그에 맞게 조직하는 지방대생들은 방법적 거짓의 차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진정하다. 다시 말해, 지방대생들의 '느슨한 스타일'은 전력을 다해 경쟁에 몰두하는 '기업가적 자아 스타일'과 다르지만, 동시에 '속물의 기만 스타일'과도 다르다. 김홍중의 생존주의자가 낙오하지 않기 위해 분투할 때, 그 분투가 자아의 포기가 아닌 사회적 통제에 '진정'하게 순응하는 자아의 생산이듯이, 최종렬의 지방대생 또한 유사가족적 관계망이 요구하는 '느슨한 스타일'에 진정하게 순응하여 그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자아정체를 드러낸다. 최종

렬(2017:282)은 이를 '딴 사람들에한테 무조건 착하게 보이려고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압박감... 그런데 시달리는 것 같기도 하고'와 같은 지방대생의 자기서사를 통해 예시한다. “그들은 너무나 착하다. 그들은 너무나 관계 지향적이다. 주변사람들을 신경 쓰고, 그들로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고 싶다. 압박감을 느낄 정도다.”

최종렬(2017)과 김홍중(2015)의 논의를 정리하다보면 우리는 '특별한 성공이나 대단한 성취'도 아닌 그저 '평범한 안정'을 위해 '분투'하는 청년에게도, 그 안정마저도 '전력'을 다해 추구하지는 않고 '적당하게 관여'하는 청년에게도, 분투와 관여의 완성, 달성, 대안, 외부, 또는 초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21세기 한국의 청년 세대에게 평범한 생존이란 특별한 성공이나 대단한 성취, 치부, 출세도 아니지만, 그렇다해서 무언가에 비해 덜 중요하거나 덜 진정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공동체의 운명을 실존의 어깨위에 짊어지고'서 사적 성찰과 공적 참여를 강렬하고 치열하게 추구하여 삶을 희생하기까지 이른 주체와 자신을 비교하여, 평범한 생존을 무언가 덜 진정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던 87체제의 세대와 다르다(김홍중, 2009:21). 평범한 생존을 자발적으로 희생해가며 추구해야 할 다른 더 '순수하고, 강렬하고, 진지하고, 아름다운' 것이 오늘날의 청년 세대에게는 없다(김홍중, 2009:20). '더 높은 경연장'에서 분투하는 생존주의자에게도 '느슨한' 적당주의자에게도 대안은 보이지 않는 사회에서 청년 세대는 범계층적으로 진정하게 평범해지고 있는 것이다. 최종렬(2017:256)은 오늘날 청년 세대가 진정성을 갖고 추구하는 것이 결국 생존이나 1차관계 유지에 머무른다는 점에서 이들이 '자신을 초월한 더 큰 존재와 관련 속에서 자신의 삶의 행로를

위치지우지' 못하고 그 결과 '유아론적'인 가치이념을 형성하게 된다고 비판한다. 이 비판은 결국 김홍중(2009)이 공적인 주체의 재생산을 강조한 것과 유사한 선상에서, 청년 세대 문제 해법을 더 큰 가치의 회복에 대한 기대로부터 모색하는 결론 도출로 이어진다.

그런데 과연 청년 세대의 문제는 결핍, 즉 당장 눈앞의 생존이나 관계유지와 같은 가치를 대체할 만한 큰 가치의 결핍인가? 우리는 오히려 지금까지의 청년세대론에서 나타난 익숙한 담론과 분석 대상을 상대화해보고자 하였다. 처지가 어렵고 궁핍한 서울의 청년, 혹은 그보다 더 어려운 지방대생들이 생존이나 1차 관계유지와 같은 유아론적인 가치이념에 사로잡혀 있고 이것이 큰 문제라는 그간의 청년세대 진단의 뒤를 따랐던 것은, “생존 너머의 어떤 세계에 대한 공유된 환상, 사회라는 ‘성스러운 환상’이 ‘사회학적 모험’을 통해 다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엉뚱한 상상”이나 이러한 상상이 과연 “헛된 희망”에 불과할 뿐이냐는 수사적 질문 외에 별다른 답이나 방안이 아니었다(김홍중, 2015:206-207; 최종렬, 2017:288-289). 우리의 질문은 다른 것이다.

우리는 극한상황에 놓인 청년의 입장을 소묘하고 그가 생존주의나 적당주의를 초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대신에, 우선 ‘평범’과 ‘안정’이 어느 정도 있어서 공적 비전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법한 청년 집단의 자기서사를 수집하고, 이 자기서사 속에서 청년 세대의 문제가 정의되고 해소되는(혹은 해소가 시도되는) 방식을 드러내어 분석해보고자 했다. 우리가 주목하는 집단은 바로 이른바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으로 분류되는, 지방 소재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의 공대생이다. 이들은 공대생을 대표하는 집단으로서 선택된 연구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지방에 거주하고 있

지만,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집단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청년 세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간주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그다지 나쁜 처지에 있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청년들에게 유아론적인 가치이념을 벗어난 가치란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 큰 가치는 어떤 기제와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청년 세대가 쉽게 자기 서사 형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없는 것이 되는가?

공대생이라는 집단이 어떻게 집합적으로 표상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대생 스스로가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언어와 상징 체계를 어떻게 사용하여 자신과 사회의 연결고리를 주관적으로 의미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공대생이 활용할 수 있는 언어와 상징 체계로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과, 공대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개인-사회 연결의 의미가 어떻게 구체적 행위 또는 언어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감지하는 작업으로 연결된다.

또한 공대생의 서사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과정은 공대생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는 과정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 Taylor(1989)는 근대적 정체성이 출현하는 역사적 과정을 추적하면서 인간 행위자(human agent), 인간(person), 또는 자기 자신(self)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근대적 관념에 대한 탐사가 선(the good)에 대한 집단적 이해의 변천 과정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작업과 떨어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자기답게 되는 것과 선(selfhood and the good) 또는 자기답게 되는 것과 도덕(selfhood and morality)은 서로 떨어질 수 없게 연결되는 주제인 것이다. 인간 행위자가 정체성(identity)을 필요로 할 때 결정적으로 중

대하게 작용하는 자원은, 단순히 거울을 들여다보는 행위 등을 통해 자신을 자신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필요와 확연하게 구별된다. 우리가 자신의 개별적 본성, 즉 정체성을 정의할 때 적어도 다른 많은 요소들과 함께 활용하게 되는 자원은 바로 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며, 이 입장의 형성은 인간으로서의 필요에 의해 촉발되고 진행된다(Taylor, 1989: 33). 다시 말해, 인간은 자기 이해나 자기 해석의 과정이 없어도 생물로서 생존할 수 있지만, 인간이 자기 자신(selves)이 되는 것은 오직 선에 이르는 방향을 구하고 찾으려는 과정 속에서 그와 관련된 질문들의 공간을 누빔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Taylor, 1989:34).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선에 대한 지향, 그 강도의 차이가 있다 할 지라도, 필요로 한다.

그런데 Taylor에 의하면 자기의 해석이란 또한 결코 완전히 명백한 형태로 완결될 수는 없는 작업이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용한 언어 자원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향하는 선을 부분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 뿐이다. 선의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가 당연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나 별 근거 없어도 간단히 믿어버리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더욱 깊은 자기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이 때 조차 우리의 도덕적이고 가치판단적인 언어가 암묵적으로 함축하고 암시하는 영역에 속하는 것들을 완전히 명시적인 언어의 영역으로 끌어오기란 불가능하다. Schutz(1970)의 유사한 논의에 따르면 행위자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경험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은,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온 '가용한 재고 지식'(stock of knowledge at hand)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이 가용한 재고 지식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역

사적으로 형성되며, 이질적인 여러 층위로 구성된다. 우선 그 자체로 분명하고 뚜렷하며 일관된 지식이 있는데, 이는 재고 지식의 핵심이 되면서도 비교적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핵심적 지식의 주변으로 더 모호하고, 불명료하고, 애매한 지식 영역들이 중층적으로 놓인다. 그 다음으로 그저 당연시되는 사물들, 맹목적인 신념, 순전한 추정, 단순한 추측, 즉 그냥 일단 믿어보는 수준의 지식 영역들이 뒤따른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Schutz, 1970: 74). 다시 말해, 가용한 재고 지식은 사실상 문화, 즉 공적 상징체계이다(Geertz, 1973: 10-12). 따라서 공대생의 서사적 정체성을 분석하는 과정은, 동시대의 한국 사회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가용한 재고 지식, 공적 상징체계를 분석하는 과정과 맞물려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공대생이 자기 해석, 자기 이해, 자기 정체성 형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언어 자원은 어떤 것인가? 이 언어는 누구에 의해 만들어져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매개를 통해 확산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 3절에서 우리는 한 지방광역시의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에서 2017년 10월 수행된 인터뷰들을 소개하겠다. 총 8명의 학부생들을 인터뷰하였으며 남학생이 7명, 여학생이 1명이었다. 인터뷰이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의 대학원 연구실(인터뷰이들은 주로 실험실 또는 랩실이라고 표현) 인턴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인턴 경험이 없는 한 명의 인터뷰이도 평소 친구들과 대학원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일상적으로 나누어왔다. 즉 이들은 아직 본격적인 과학기술 연구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모두 연구자로서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대, 두려움, 혼란,

욕구, 선(the good)에 대한 지향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2017년 한국이라는 특정한 시공간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가용한 재고 지식'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30분에서 1시간가량 지속된 반구조적 인터뷰에서 우리는 인터뷰이들에게 자신의 일상, 진로 및 학업에 관한 생각, 일차집단과의 관계, 한국의 과학기술이나 교육 또는 전반적인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문제의식을 형성하게 된 계기에 관해 되도록 구체적으로 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들의 자기 서사는 물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인터뷰어의 앞에서 자신을 비교적 이상적인 주체로서 드러내고자 하는 소망 심지어는 부담감이 작용하여 수행하게 된 자기 공연일 수 있다. 그러나 청년 세대가 느끼는 삶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도 아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만족할 만한 것, 불안 요인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속할 만한 것, 부끄러움이나 뻔뻔함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다른 한 편으로 분명 어떤 선한 것(the good)에 대한 지향을 담아 말할 수 있는 무엇으로서 해석하여 드러내는 과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과 사회를 포함하는 집합표상이 특정한 언어 활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방식에 우리는 주목한다.

한편 이 논문이 주목한 대상은 지방에 거주하지만 엘리트 이공계 대학에 다닌다는 측면에서 분명 특수한 맥락에 처해있는 젊은 공대생들이다. 이들은 지방에 거주하지만 취업길이 막연한 문과생과는 다르고, 낙오자나 실패자로서의 지방대생도 아니며, 이른바 '알바'와 학업을 함께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전쟁인 학생들과도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서사화한다. 그러나 이 논문의 목적은

청년 세대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층을 찾아내어 그들의 ‘대표적’ 고통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 세대 중 가장 깊은 사회경제적 곤경에 처해있으면서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청년 세대 담론으로부터 빗겨나있던 학생들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것 또한 이 논문의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이 논문은 기존의 청년 세대 담론들이 특정한 청년—예컨대 수도권에 거주하며 치열한 생존 경쟁에 관한 발화를 생산하는 청년이나, ‘약자 중의 약자’로 상정되는 지방대 학생—에 주목하면서 이를 통해 청년 세대 전반에 대한 논의를 생산하고자 했던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간의 청년 논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었으며, 아마도 비교적 적은 혼란과 좌절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상정되었던 한 청년 계층에 주목해봄으로써, 이 논문은 이들에게도 여전히 나타나는 ‘불안’과 ‘발악’의 자기 서사를 역사적, 사회적 이해와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선 우리가 수집한 공대생의 자기 서사를 전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네 사람의 인터뷰를 다소 길지만 최소한의 편집과 함께 3절에서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4절에서 3절에 소개된 인터뷰들과 나머지 인터뷰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세 가지 주제—그다지 나쁘지 않은 삶, ‘진정’한 즐거움, 개발민족주의에 대한 반감—에 관해 분석할 것이다.

3. 공대생들의 자기 서사

A는 생명과학과의 학생이다. 현재 인턴으로 일하며 연구하고 있

는 주제에 대해 말할 때 그의 눈빛은 반짝였다. 그는 우선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회사에 취직을 한 상태에서 박사과정 진학 여부에 대해 고려해 볼 계획이라고 한다.

“연구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꿈이기도 했고,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연구로 실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재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일을 최소 30년을 더 한다 생각했을 때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박사과정 5년 동안에 한 교수님 밑에 있다는 건 불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크게 관심 갖고 재미난 일은 xxx 연구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관심사는 또 달라요. 인문학, 철학, 다른 과학 분야에도 관심이 있어서. 석사를 일단 (xxx 주제에 집중해서) 판 다음에 박사는 융합 같은 걸 할 수 있고. 또 박사는 외국의 대학을 알아볼 수도 있고. 석사로 끝이라기 보다는 석사가 다시 한 번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미 자기가 원하는 연구 방향과 꿈과 인간적 관계에서 스타일도 교수님과 완전 맞아떨어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민 한 번 하지 않고 들어가서 잘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인턴을 할 연구실) 교수님 컨택할 때 지향점은 하나였어요. XXX 연구하는 곳이어야 하고 OOO 쓰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확 꽃혀가지고 하는 친구를 보면 참 재미있게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과 하는 일이랑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잘 맞는 친구들도 있어서. 정반대인 친구들도 있거든요. 하고 싶은 것 하는 쪽이 행복해보인다 생각했어요.”

A는 한 때 힘들었던 기억이 자신에게도 있지만 결국 하고 싶은 연구주제를 찾았고 '마음을 잡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청년

세대에게 희망이 없다는 세간의 표현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상당한 동감을 표현하며 서두에서 소개한, 자신의 친구와 그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냈다.

“그 친구는 극단적인 예시지만 제 스스로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보였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보여요. 목적지를 가르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채찍질하고 있는 사회가 되게 슬픈 사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른들 매일 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이 매일 하고 싶은 것만 하겠냐'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 하나 싶어서 그 다음 얘기 잘 들어보면 그 분들 본인들이 하는 일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아 본인들이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아 우리 사회가 그렇게 좋은 사회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공계 실험실의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도 A는 체계적인 비판을 내놓았다.

“첫째로 이공계 실험실이면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연구를 하고 싶어서 연구실에 간 것이고 그래서 진학을 한 건데 인간적 관계 때문에 들어진다면 그것은 이공계 전체에 불이익이라고 보구요. 두번째로 H-Index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학에서는 (평가기준으로) 잘 (확립)되어 있는데요. H-Index나 피인용지수는 능력치를 다 보여주는 지수가 아닌데 그런 지수로 줄을 세우는 것 같아요. 능력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점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안 좋다고 생각했구요. 세번째로 공학이라는 게 다양하고 깊은 학문인데, 충분히 이해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연구실이 뭐하는 곳인지는 가서 해봐야 아는 일인데,

그렇게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았어요. 들어와서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나갈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문제지 않을까는 생각을 했어요. 한 친구가 맨날 하는 말이 '실험실만 가면 불을 지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스트레스를 연구실 와서 소리 지르면서 푸는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보다 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 친구는 실험실을 나가고 싶단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나갔어요. 이 친구가 분명히 관심있어서 갔을 텐데 막 힘들어하는 것 보면서 좀 아니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대학원 진학하면서 교수님의 인성을 봐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거든요. 성격이라든가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과학 연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무리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관계가 중요하겠지만, 그런 (성격이나 취향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마찰과 같은) 것들을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거의 모든 인터뷰이들과 마찬가지로 A는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 방식은 노벨상에 되게 집착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성과주의가 강한 것 같아요. 사실 노벨상이라는 거는, 대회 일등 하듯이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다보니까 어느 날 옆에 와있는 거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믿고 맡기지 않잖아요. 제가 실험하면서 느낀 건데, 사람이 미리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을 지 없을 지 모르는 것에 대해

서 계획을 세우고, 나오지 않으면 왜 나오지 않느냐고 묻는 스타일이 우리나라의 성과주의인 것 같아요.

교수님이 (연구과제 성과) 발표하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발표의 일부가 제가 했던 실험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국가 계획은, 국가 아젠다는 뭐 3년 동안 계획을 세워와라. 그리고 연차별로 이걸 해와야 한다 그러잖아요. 교수님은 그러면 맞춰서 1년차에 이거를 하겠다고 맞춰서 말하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제가 (실험)하고 있는 거에서 딱 원하는 게 나올 확률이 한 10의 9승 분의 1의 확률(웃음)로 나올 수 있는 건데, 남은 기간은 3개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하는데, 다 따졌는데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실험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은 경우의 수니까 실수로 누락될 수도 있는 건데 3개월 안에 해 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발표를 듣는 사람들은 (실험과 관련된 내용을) 다 이해하겠지만, 돈을 주는 예산 쪽은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을까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게 좀. 돈을 관리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하고 괴리가 있겠구나는 생각을 했어요.”

A는 자신이 과학 외에도 윤리와 철학에 관심이 많다고 하며, “그냥 본인 생각에서 나오는 기준점들이 아니라 고민과 토론을 통해서 원칙을 세울 수 있게 고쳐줄 수 있고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윤리 관련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B는 화학과의 학생이다. 빠른 말투로 이야기를 잇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고서 '그런데'라고 덧붙여가며 자신에 대한 말을 하는 그는 상당히 꾸밈없다는 인상을 주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캠프가 신소재 쪽이었는데 고등학생 때 책도 막 그 쪽으로 읽고 공부도 화학 하다보니까 많이 한 게 재미있어지고 재미있으니까 잘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 쪽으로 온 것 같아요. 4학년이라서 졸업 후는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당장 먼 미래에 뭘 하겠다보다는 대학원 진학해서 박사학위 따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연구직을 하자 이 정도로 생각해요.

친구들, 선배들과 이런 (진로에 대한)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주위에 이미 많은 길을 간 사람보다는 저보다 조금 간 사람들하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긴 하는데, (종종 듣는 얘기가) '대학원생은 일단 힘들다.'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말은 '대학원생은 정말 힘들고, 주변에 취업한 친구들 보면 정말 부러울 거다. 그런데 취업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은 어쨌든 너는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고 더 큰 걸 바라지 않느냐. 그런데 취업하면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경력) 끝날 거다. 그리고 네가 지금 하는 걸 하지 못할 거다. 그런 걸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턴 했었는데 인턴 했던 랩 대학원생 언니 한 분이 너무 후회를 하더라고요. 박사과정인데 내가 대학원 온 게 후회가 된 게 아니라. 저희 학교 있다 보면 대학원 가는 길이 너무도 당연한 길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한 번도 자기는 취업이라는 걸 생각해보지 못했대요. 근데 친구 한 명은 그냥 자기랑 똑같이 대학원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취업을 하겠다고 해서 취업을 하긴 했는데, 자기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대요. 저렇게 위험한 길을 가려고 하나. 아무 것도 모르는 길을. 다들 가는 대로 가지 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너무 재미있게 잘 하고 있고 자기는 여기에 온 게 후회된다기보다 한 번도 그거를 생각해보지 않은 게 후회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제 가치관에 맞춰서 (진로를)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그

때 처음으로 했었어요.”

다소의 혼란과 고민을 거쳤지만 B는 현재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단은 박사학위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그러한 결심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B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그게(박사학위 취득이) 더 안정된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뻔한 얘기긴 한데 대학원을 가고 나서 취업하기는 쉽지만 취업을 했다가 다시 제가 석박을 따고 싶을 때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순간 B는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결심 이면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혼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사실 제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학교가 굉장히 특수한 (연구와 대학원 중심의 이공계) 학교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에 굉장히 잘 맞는 친구들이 있고, 학교랑 잘 맞지 않는 친구들이 반 이상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는 학생들은 이 학교의 시스템이 너무나 효율적이예요. 공부하기 최고의 환경이고, 최고의 교수님들에, 경제적인 지원도 빵빵하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최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더 좋은 성적으로 우리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고, 더 똑똑한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서 (적응이라는 면에서) 자꾸 뒤쳐지고. 그런데 자기는 왜 뒤쳐지는지 잘 모르겠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너무 혼란이 되는데 그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 학교엔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보이더라구요.”

공부하기에 '너무나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이 해볼 수 있는 '발악'이 여행이고, '저도 그랬다'는 것이 이 논문의 서론에 소개된 B의 이야기이다(그는 '발악'과 '멀리 떨어져서'를 힘주어 강조했다).

“뭔가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계속 똑같거든요.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 똑같고. 어느 랩실 (인턴 또는 대학원생으로) 들어갔어. 어느 과목이 힘들어. (그러니까)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닌 알바들이라도 다 한다거나. 전시회나 뭐 문화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그런 걸 하러 간다든가. 강연을 들으러 다닌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세상을 탐색한다). 사실 어떤 게 정답이고 그게 얼마만큼 (내 삶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에 그런 친구들을 위한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요. 휴학하고 서울에 있어봤는데, 저는 이공계 말고 다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길을 가는 게 그냥 안정된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지만 일단 최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이공계 내에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찾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서울대 어느 랩실에 인턴 신청을 했어요 (웃음).”

서울대 '랩실'의 연구가 재미있었느냐는 질문에 B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했다.

“연구가 재미있었다기보다는 그 (실험실) 생활이 저한테 맞았어요. 그냥 어느 정도 (실험 결과) 정리되면 퇴근하고 서로 각자 (연구한 것들) 주고 받고. 가족 같은 랩실 사람들이랑 사는 얘기도 하고, 그런 게. 저는 지금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를 아직 찾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 맞는 것도 직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처음에는 (실험실에서의 연구 경험) 했는데 어 뭐야 생각보다 별론데? 나 이제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과학동아 지원해볼까? EBS 기자단을 한 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저의 막연한 (기대인) 거지만, 거기 (이공계를 벗어난 직장)에 갔을 때 뭐가 힘든지 모르고 그게 맞다는 확신도 없어서.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되고 (웃음), 그리고 또 제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어쩌면 이게 저한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고민중이긴 한데 이게 (이공계 대학원 진학)이 지금 저한테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인정을 받는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인터뷰어에게 B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했다.

“아,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저는 제가 '잘한다, 잘한다,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부모님도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시고 걱정하지 않으신다.' 이 정도로 (스스로 납득할 수 있게) 하면 (좋다). 그런 불안함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가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아요. 살아본 결과 (웃음). 그런 면에서 굳이, 책을 읽는다거나 강연을 들으러간다거나 그런 거는 연구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다양한 활동을 해보거나 이공계 이외의 진로 탐색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 모험이 아니라, 욕심이나 객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대에서 인턴할 때) 아홉 시까지 출근해서 아홉 시에 퇴근했어요. 상식적으로 들으면 힘든 조건인데, 그 내내 실험한 게 아니라 두 세 시간씩 책도 읽고. 밥 먹는 시간 한 시간씩 있고 산책도 하고. 논문 읽고 싶은 시간에 논문 읽고. 그게 (실험실이) 그냥 집이 되는 느낌. 물론 여섯 시에 아 나 놀러가고 싶어 이럴 때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있던 랩실은 운이 좋아가지고, 완전히 '너 무조건 이 때 퇴근해', 이런 랩실은 아니었어요. 다들 통상적으로 아홉 시에 퇴근하시긴 하지만, 나 오늘 저녁 약속 있어서 가고 싶다고 하면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조절이 되었어요. 회사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제가 인정받는다,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정도의 자격이 없어서 이 랩실에 오지 못했다면 그런 (유동적인 근무조건이 있는) 생활을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람 있었어요.”

B는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해서 과학동아에 취직하는 것을 잠시 고려해보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지는 않았'고 아마 대학원에 진학해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게 될 것 같다고 자신의 미래를 예상하였다. 경제적인 문제가 그의 진로 고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대학원 진학하면 (연구원 인건비와 장학금)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까지 경제적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다). 부모님한테 계속 폐 끼치고 싶지는 않아요. 30살 되었는데 용돈 받고 이려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정도는 되는 상태에서 (크게 경제적인 조건에는 구애 받지 않고) 선택할 것 같아요.' 인터뷰이는 B에게 대학원생의 삶이 포함하는 불안정함과 불확실성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다.

“거의 매일 하죠 (웃음). 사실 제일 불안한 건 뭐냐면요. 나는 사실 다른 걸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고민하는 건 너무 늦은 것 같다. 이런 게 가장 불안의 요인 같아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대학원 써보고 싶다.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연구해보고 싶다. 제가 성적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랩실에 지원하고. 그냥 갈 수 있는 랩실은, 타협 같고 재미 없을 것 같으면 아예 안 쓰고 정말 여기만 (가고 싶은 실험실만) 쓰면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이 하고 여행을 1년 동안 떠나볼까 아무 것도 안 한 상태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대학입시를 준비하다가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잡았을 때는) 제가 공부할 때는 엄청 열정적으로 했거든요. 진짜 하고 싶어서. 화학이 너무 재미있고. 진짜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한 번 자극을 받으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말 재미있는) 게 잘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걸 일단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면 그냥 아예 새로운 환경 (여행 등) 가 보고, 그런 생각들을 해요.”

C는 원자력공학과 의 학생이고 한 실험실에서 2년간 인턴으로 일하고 있으며,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원으로 일하고 싶다고 한다. 원자로 설계에 관해 열심히 설명하던 C는 언론매체에서 보도되는 대학원생 처우 문제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헬조선' 같은 기사를 보면서 우리 학교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많이 느꼈어요. 다른 학교가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지만. 사실

제가 월요일에 (실험실에) 안 나타나도 왜 안 나타나냐 물어볼 사람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설명만 할 수 있으면, 교수님이 기분은 안 좋아하시겠지만 '그랬구나' 하시겠다는 느낌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제가 학부생(인턴)으로서 받는 월급이 딱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니까. 방세 내고, 밥 먹고, 왔다갔다 차비 내고 하면 한 10만원 한 달에 남는 그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 정도 해서 그냥 내 공부 열심히 하면 문제 없겠다는 생각해요. 모자라서 알바를 해야겠다는 그런 건 전혀 못 느껴봤어요. 해외 출장 갈 때도 당연히 돈 다 나오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든가 그런 생각 못 했어요. 약간 미안한 느낌이 들었던 건, 밖에선 다 대학원생 처우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끼리는 전혀 그런 것 못 느끼고 오히려 돈이 좀 남는구나, 괜찮네,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다들.”

별로 큰 곤란을 느끼지 않는다는 표현은 8명의 인터뷰이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의 특성상 대부분 학비 감면과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민은 없느냐는 인터뷰이의 질문에 C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연구를 남한테 안 휘둘리면서 할 수 있을까. 주로 하는 고민은 정부 때문에 원자력공학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는 생각을 해요. 그거랑 교수님한테 인정 못 받는 학생들 몇 명 있으니까 그 친구들처럼 인정 못 받고 그냥 이름뿐인 박사 받고 나가는 건 아닌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취직할 때 교수님이 힘을 덜 써 주시지 않을까. 열심히 안 하고 결과도 안 좋으면 교수님도 밖에 나가서 애 내 제자라고 말 안 해주겠지 싶고, 그러면 중요한 사람이 못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불안하다).”

그가 근래 주로 하는 고민이라는 정부와 원자력 공학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설명해달라고 해보았다.

“정부에서 지원 잘 해주면 잘 되는데, 지원 안 해주면 잘 안 되는구나. 정부가 푸쉬 안하고 그만 지원해주면 다 취소되고 그렇게 되는구나, 생각하면 무력한 느낌을 받았어요. 무력하게 느껴지는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 포기하면 (원자력) 공학자 없어지는 거고 다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지겠구나. 무력하게 많이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했는데. 2학년 때 원자력공학 전공 선택해서 저는, 앞으로 박사까지 하면 5년, 6년 더 할 텐데, 그러면 최소한 10년 이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초등학교부터 공부한 만큼 더 해서, 제 초등학교 8살 때부터 보면 총 24년짜리 교육 과정인데, 5년 마다 정부 바뀔 때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이 12년 동안 공부하려고 박사과정(으로 가기 전 단계로서의 학부교육을) 시작하는 애들 생각하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과 바꾸기가 쉬워서 그나마 낫지. 서울대나 그런 애들은 1학년 때 원자력공학과 들어가면 과 바꾸기도 어려운데, 그 친구들이 과연 12년 동안 (대학원에 진학해서) 원자력공학과 공부할까. 만약에 저라면 서울대나 종합대학교에 있다면 취직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발전) 안 한다, 시민들이 한 80%가 싫다고 해서 원자력발전 안 한다하면 지금이라도 저는 돈 좀 더 내고라도(그래서 졸업을 늦춰서라도) 컴퓨터공학으로 그냥 전공을 바꿔버려도 돼요. 그런데 나는 원자력공학 할 거다라는 마음의, 안의 그건 (지적 욕구는)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했다라는.”

만약 정책결정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원자력 정책과 관련해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C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앞에 얘기했듯이 사람 공부가 24년짜리 공부잖아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교육과정 바뀌는 게 큰 불만이었어요.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책도 다 바뀌고. 배우던 미분을 다음 해부터 안 배운다든가. 사실 그 과정 안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해 왔는데 왜 갑자기 수능 치기 전에 교육과정이 바뀌어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났었는데요. 사실 기대했던 건 대학교 가면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좀 더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사회에 이렇게 있다가, 박사과정까지 간다면 사회에서 약간 뜰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사회가 막 좌지우지하는 거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겠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대학 와서 보니까 똑같은 거죠. 고등학교 때 교육과정 바뀌면서, 배우라 했다가 그만하라 했다가, 그런 거에 지쳤는데, 대학교 와도 결국에는 뭐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 좋다고 하면 이거 연구해야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그만해야 되고.”

‘휘둘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듣고 싶어지게 만드는 말이었다. 인터뷰어는 원자력공학과의 어떤 점에 끌려서 전공을 택하게 되었는지를 C에게 물어보았다. C의 답은 다음과 같았다.

“지금 30% 이상 (한국의) 전력 발전을 (원자력으로) 하잖아요. 국가 하나를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기여를 하고 싶어요. 원자력공학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고, 한국이란 나라를 결국에는 이끄는 그

에너지원을 만드는 그 쪽(학문)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니까 중요해 보였어요. 에너지원인데 어 이거 싫으니까 저거 하자 소리는 당연히 못하겠지 생각했던 (그래서 안정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이라 짐작했던) 것도 있어요.”

“지친다는 느낌 별로 안 든다”는 말로 C는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아 긍정적인 것으로 요약했다.

에너지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D는 '과학기술사' 과목을 수강하며 Han and Downey(2014)의 책, 'Engineers for Korea'를 읽었다. 그는 한국의 개발민족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세대 갈등과 연결지어 이야기하고 싶어했다.

“제가 러시아로 전역하고 여행을 갔는데, 어떤 60대 건설회사 사장님을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3분 만에 '요즘 애들은 애사심이 없고 열정페이니 이런 걸 너무 따져대서 발전이 없다.'는 말을 하셨어요. 본지 3분 밖에 안 된 사람한테. 이 사람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고모가 KAIST 어떤 교수가 쓴 '헬조선이라 빈정대지 말아라. 너희 어머니들이 술 따라주면서 경제 발전했다.' 이런 글을 갑자기 뜬금없이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이런 글을 25만 명이 공유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영 아닌데. 제가 그런 것 안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한 번 생각은 해 봤어요. (한국의) 과학기술이 침체된 것이랑 (세대갈등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6-70년대 독재정권 하에서는 너희는 무조건 희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발전을 이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나로호 발사 같은 것 봐

도, 지금까지 한국은 (경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만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쟁을 해나가야 하는데,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이 없으니까 엄청난 돈을 들이고서도 계속 실패를 해요. PhD들은, 제가 한 번 찾아보니까 2013년쯤 나온 조사를 보니까 60% 정도가 외국에 나가고 싶어한다고 해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희생할 줄 모른다'는 말로 비난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앞으로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인가 생각해봤어요.

국가와 과학과 공중(the public)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어요. 예전에는 희생을 강조했을 때 순응하거나 반항하거나 둘 중 하나였잖아요. 대부분 순응하다 보니까 중간 계층도 먹고 살만큼 되고 기득권들은 엄청난 이득을 얻은 것 같아요. 이제는 마찰이 생겼을 때 순응을 시킬 만한 독재 정권은 존재하지 않고, 순응의 결과로 만들어진 사회가 양극화를 발생시켜서 청년들이 공무원이나 편하고 안정된 직장만을 찾는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을 룱팀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방향에는 누구나 맞다고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학기술을 하려면 어차피 투자를 할 만한 돈은 국가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반이 다져지지 않았는데 (다지기 위해서) 과학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나 생각해봤는데요. 어떠한 잣대가 없이 지금 상황이 너무 (경제 성장을 위한 과학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 방향 (룰팀으로 기초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주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고 단순히 이야기하면, 다시 또 불만이 터져나왔을 때, 정확한 잣대를 생각을 안 해 놓으면 왔다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하면 그 결론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너무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로만, 나머지 2,3,4,5 들을 다 버리고 1만 보면서 갔기 때문에 극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었지만 또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또박또박하고 비교적 거침없는 말투였다. 인터뷰어는 “그러면 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이 1번이라면, 다른 2,3,4,5로는 뭐가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았다. D는 “순수과학이 있고.....”라는 말 뒤로 한참 침묵했다. 이어진 “순수과학의 의의는 뭐라고 생각해요?”라는 질문에는 다소 당황스러운 듯한 침묵 이후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인류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해 준 것은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이었어요. (.....) 순수과학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류가 더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싶어요. 한 측면만 보면 '지금 충분히 효율이 높은 에너지원이 있는데 왜 그걸 버리고 굳이 연구를 하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서 잘 발전되면 국익에, 국가에 이득이 돼요.”

인터뷰어는 그를 계속 자극해보기로 결심했다. “나로호가 기반이 없어서 실패한 것 같다고 했는데, 한국의 과학기술에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을 언제 어떤 계기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런 기사들 많잖아요. 왜 한국에는 노벨상이 없는가. 그런 거랑 책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방향이 경제 발전이란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종합해봤을 때 왜 우리가 노벨상을 타지 못하는가 생각해봤을 때 원인이 경제발전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기반적인 기술이 발전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새

로운 경쟁 시대에서 잘 하려고 해도 근본된 기술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뒤처지고, 이제 스스로 발전하려고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사람들이 천체를 봤을 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태양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다가, 뉴턴이 그런 논의의 맥락 속에서 미적분학과 수학을 발전시키고, 그 기반 위에서 공학이 발전했잖아요. 그냥 '아 이게 왜 이럴까'라고 고민하면서 축적되어 쌓여왔던 것들이, 공학과 실용적 기술의 기반이 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을까, 그런 호기심으로 연구를 하다보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진로를 생각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D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고민이 돼요. 고등학생 때는 과학 좋아했는데 사실 인생을 걸고 할 만한 게 있나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요. 불안하죠. 뭐가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방향을 잘 못 잡은 것 같아서. 우리학교 학생들 보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듯이 대학교에서 대학원에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는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엄청 흥미로운 분야가 있으면 가는데,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인생 걸어볼 만하다 싶으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졸업이 가까워와도 '진정으로 하고 싶은' 연구가 안 생기면 어떻게 할지는 생각해봤나요?”라는 질문에 D는 천천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다. 인터뷰어는 질문을 바꿔 “그러면 만약 '엄청 흥미로운 분야'를 찾으면 뭐가 좋을 것 같

아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침묵 이후 D는 “그러게요.”라는 서두와 함께 진지한 어조로 답했다.

“자기가 흥미 있는 분야가 있다면, 자기가 최종적으로 규정해 놓은 골을 향해서 계속해서 부딪치면서 부딪치면서 고민하는 과정들은 어렵겠지만, 결과적으로 도달했을 때의 성취감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해요. 전 그런 경험 한 번 해 봤거든요. 계속 고민고민하다가 왜 그러지했는데, 남들은 그냥 넘겼는데, 알고 보니 단순한 해법, '이것 때문이었네!'를 깨달았을 때, 그 과정에서 제가 축적했던 지식들과 흥미들은 제 원동력이 되어줬다고 해야 하나, 그 자체로. 그럴 것 같습니다.”

4. 인터뷰 내용 분석

1) 내 삶은 나쁘지 않다

공대생들의 자기 서사에서 표현되는 삶은 그리 나쁘지 않다. 특히 지방의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은 '공부하기 최고의 환경이고, 최고의 교수님들에, 경제적인 지원도 빵빵'하다. '편안'하고 '안정'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다. 혹은 한 인터뷰이의 표현을 빌어, “한국이 고쳐야 할 것은 많다고 생각해요.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제가 큰 피해를 못 받아서 그런가? 그렇게까지 할 말인가? 생각하긴 해요.”라는 발화를 생

성하는 공간이다. 이들은 모두 '나는 긍정적'이라거나, '예전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심해 방황하거나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을 잡았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들의 자기 서사는 안정감의 합리화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인턴을 아침 아홉시부터 밤 아홉 시까지 하지만 “완전히 '너 무조건 이 때 퇴근해', 이런 랩실”은 아니었다면 운이 좋은 것이다. 학부생 인턴의 인건비가 생활비를 해결하고 ‘한 10만원 한 달에 남는 그 정도’이면 문제없겠다고 표현한다. 실험실 인턴이나 대학원생의 삶은 '취업'을 하여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삶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삶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더 유동적이고 자율적인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커리어가 '빨리 끝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지적 자본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청년 세대의 삶을 근시안적 가치에 붙잡혀서 사는 것으로 해석하여 문제시하는 이전의 연구들은, 그 근시안적 가치들을 자기 계발, 자기 경영, 대단한 성취가 아닌 평범한 안정, (유사)가족 집단 안에 머무르기 등으로 요약해왔다. 청년 세대는 승자독식의 질서를 내면화하고 오직 자기계발에 몰두하는 물질치적인 인간(오찬호, 2013; 우석훈·박권일, 2007; 전상진, 2008)이거나 사회적 행위 능력이 없는 동물적 인간(김홍중, 2007)이며, 이와 같은 ‘속물성’ 혹은 진정성의 결핍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시대적 전환으로서 해석되기도 하는데, 김홍중(2009: 21)은 87년 체제에서 나타난 진정성의 주체가 '공동체의 운명을 실존의 어깨위에 짊어지고'서 사적 성찰과 공적 참여를 강렬하고 치열하게 추구하여 삶을 희생하기에까지 이르렀으며, 이는 그에 대비되는 평범한 생존을 무언가 덜 진정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게 하는 주체성을 생산

하였다고 논의하였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의 97년 체제는, 그에 따르면 진정성의 헤게모니가 상실된 체제이며 경제적 생존을 위해 공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치부를 추구하거나 '일중독'으로 표현되는 강박적인 노동형태를 취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퇴보에 가깝다. 따라서 김홍중(2009:23)이 97년 체제에서는 '끝없는 자기 성찰과 각성된 시민적 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물질 토대가 더 이상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편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시대의 과제를 '생존자'의 헤게모니를 넘어서 공격 책무를 실천할 수 있는 주체 생산을 위한 새로운 장치 발명으로 설정하는 것은 그의 논리상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러나 우리의 인터뷰는 청년 세대가 언뜻 '근시안적'이며 평범한 생존을 어떻게 다양한 가치와 연결 짓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인터뷰에서 포착되었던 한 언어는 '자격'이었다. B는 서울대에서 인턴을 했을 때 자신이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노동 환경에 편입될 수 있었다고 표현했다. 그랬기 때문에 B의 인턴 경험은 단지 비교적 유동적인 노동 시간의 체험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었으며, 그가 다소의 혼란을 겪은 이후에 역시 대학원에 진학해야겠다고 결심할 수 있게 추동해 주는 것이었다. 여기서 자율성이 있는 연구자로서의 삶은 추구하고 싶은 목표이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으로 의미화된다. 후자는 자율성이 있는 연구자로서의 삶을 원한다는 개인의 취향에 도덕적 감성을 부여한다. 이것은 C의 표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박사과정까지 간다면 사회가 좌지우지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을 줄 알았다'는 표현으로, 원자력 정책을 좌우

하는 정부와 시민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는 '원자력발전 안 한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돈 좀 더 내고라도 컴퓨터공학으로 그냥 전공을 바꿔버려도 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의 원자력공학과 학생에 비해서 '무력감'을 덜 느끼면서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겠다는 의지를 지속할 수 있다.

개인의 재능 개발, 훈련, 동기화의 결과로 성공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 즉 능력주의(meritocracy)의 이데올로기는 미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대중적 믿음이면서 미국의 공대생 문화를 특징짓는 사고이기도 하다(Cech, 2013). 능력주의는 단순히 성공을 개인의 노력으로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성공의 지표가 되는 자원들의 불균등한 배분을 정당화하며 불평등한 상황의 전개를 도덕적으로 수용가능하고 공정한 과정으로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이데올로기이다(Cech and Blair-Loy 2010; Lerner 1980). 사회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독불장군과도 같은 굳은 의지로 공학적인 혁신을 이끌어내는 천재형 인간—예컨대 토머스 에디슨이나 스티브 잡스—에 대한 낭만적인 상상은 미국의 대중 과학담론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으며, 이것은 역사에 대해 좀 더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다수의 공대생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들이 성공을 누구나 차고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해하도록 유도한다(Hughes 2005; Nye 1994). Cech (2013)는 미국의 공대생들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함으로써, 기술이 사회적 불평등의 강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둔감해질 수 있다고 논의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만난 인터뷰이들은 대단한 공학적 혁신을 꿈꾸거나 특출한 재능과 의지를 통해 성공하고 싶다는 자기 서사를 발화하

지는 않았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주로 ‘잘한다, 잘한다,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부모님도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시고 걱정하지 않으신다.’ 또는 ‘작년에 박사학위 받고 졸업하고 바로 XX 연구원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선배가 얼마 전에 실험실에 왔다. 일하고 있고 애 낳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 삶이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류의 언어로 표현되는 ‘평범한 안정’이다. 그런데 이 정도의 안정감을 스스로 획득가능한 것으로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공대생들은 석박사 학위가 없다면 ‘너 생각보다 빨리 (경력) 끝날 거’로 표현되는 사회적 불안감을 언어화하고, 안정감을 ‘자격’으로 수식하며, 자신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으로서 표현한다. 성공의 성취가 아닌 평범한 삶의 ‘자격’을 정당화하는 생존주의적 능력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능력주의가 갖는 함의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윤리적 혹은 감성적 평가와 무관하게, 우리의 인터뷰와 이후 이어지는 분석은 공대생의 정체성 발화가 단지 ‘근시안적’인 목표만이 아닌 어떤 견고한 가치 체계와 연결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이들은 자신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드러내며, 경제적인 상황이나 대학원의 구조적인 권력 불균형 문제 등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는 이들이 교수와 대학원생의 갈등, 경쟁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압박,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같은 불안 요인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표현하는 긍정적 태도가 아니다. ‘실험실만 가면 불을 지르고 싶다’는 친구, ‘대학원은 정말 힘들다’를 강조하는 선배를 만나며 충분히 형성될 수 있을 만한 공대생들의 불안감은, 아래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내가 정말 하

고 싶은 것'을 통해 해소 가능한 것으로 의미화된다.

2) '진정' 하고 싶은 일이 중요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이상화는 거의 모든 인터뷰이에게서 나타났다. B는 '재미있게 할 자신이 있다'는 표현으로 '재미'에 단순한 취향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다. 진정한 재미와 열정을 체험한다는 것은 역량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조건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서 우월한 역량으로서 의미화된 것이다. D의 자기 서사, “자기가 흥미 있는 분야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도달했을 때의 성취감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해요. 전 그런 경험 한 번 해 봤거든요.”에서도 흥미는 즐거움을 넘어서 자존감의 근원을 형성할 수 있는 요소로서 표현된다. A의 자기 서사, “저도 처음 (인턴을 할 연구실) 교수님 컨택할 때 지향점은 하나였어요. XXX 연구하는 곳이어야 하고”에서도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와 같은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진로를 선택했다는 설명을,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다. A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좋은 사회가 아니'라는 자신의 생각을, 어른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다'는 말을 통해 사회 통념에 따를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청년 세대가 연애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어졌다는 서사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C는 탈핵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였지만 당장 컴퓨터공학으로 전공을 바꾸지 않는 자신의 선택을 '나는 원자력공학 할 거다라는 마음의, 안의 그것'으로 수식했다. D는 에너지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지만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드는 연구'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자신이 생각하는 '순수과학'의 본질적 가치와

연결짓기도 했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을까, 그런 호기심으로 연구를 하다보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박사과정 진학을 생각하고 있다는 한 인터뷰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네가 재미있어 하는 일을 하라고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위치에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일반 종합대학에 간 고등학교 친구들이 취직 이야기를 할 때면 그것 때문에 잠재적으로 불안감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크게 의식하지는 않는다”는 표현으로 자신이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상황과 주관적으로 인식된 계층의 연계를 서사화하였다.

일에서 느끼는 강렬한 재미와 몰입감을 '역량'으로 의미화하는 경향은 이전의 공학자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 널리 관찰된다. McIlwee and Robinson (1992)은, 지정된 과업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계속 몰두하여 건드려보고(tinkering), 직업이 곧 취미이고, 헌신적인 열정과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기울여 언제나 기술을 가지고 노는 의식(rituals of tinkering)을 수행하는 것이, 뛰어나고 경쟁력 있는 공학자의 자질로 인식되는 공학 문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연구들은, 코딩에 지나칠 정도로 몰두하여 오랜 시간 열정적으로 몰두하는 IT 전문가라는 공학자 정체성이 남성성과 친연 관계를 형성하면서 여성을 배제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했음을 지적한다(Turkle, 1984; Hacker, 1990; Margolis & Fisher, 2002; Kendall, 1999). 일과 놀이가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직무에 몰입하고, 강도 높은 장시간의 작업에서도 재미를 느끼며, 동료와 기술적인 대화를 일상적으로 즐기는 습성을 통해 전문성을 쌓아가는 공학자 정체성, 이른바 기크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일에 대해 느끼는 강렬한 '재미'라

는 감성이다. 이 감성은 개인적 자질이지만 남성, 백인, 고학력자와 같은 특정 계층이 주로 습득하고 수행하며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는 '역량'으로서, 사회적으로 계층화 되는 것이기도 하다(김성은·김효민, 2015; Kim et al., 2017).

내게 우월한 역량이 있다는 자기 확신이 진정한 재미 또는 열정의 형태로 감각되지 않을 때, B와 B가 만난 '잘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은 진정성을 형성하기 위한 의식'진정'하지 않은 일상으로부터 멀어지는 행위—을 수행했다. B는 이공계 이외의 진로 탐색을 해보는 것이 '모험이 아니라 욕심이나 객기'일지 모른다고 표현할 정도로 신중함을 지향하는 감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 수 있는 랩실'은 빼고 '정말 가고 싶은 랩실에만' 지원하고, 안 되면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처럼' 접고 '아예 새로운 환경'에 가보는, 마치 일부러 가용한 안전망을 치우고 도박을 하는 것과 비슷한 기획을 해본다. '아무 것도 안 한 상태로' 떠나는 여행의 기획이 가능하게 하는 지향은, 아마 그렇게 해서라도 찾을 수 있는 '정말 재미있는' 것과 정말 재미있어하는 상태에 놓인 자신에 대한 희구일 것이다. 정말 재미있는 연구를 하는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납득할 수 있을 때, 여행은 '객기'가 아닌, 해볼 만한 일로 의미화될 수 있다. B는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서며 “그런데 제가, 인정을 받고 안정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유동적인 근로 조건이 되고, 지금은 이런 게 좋아서 대학원에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재미있어서 빠져서 하는 게 이상적인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해요.”라는 말로 자신이 주관적으로 해석한 '진정한 재미'와 '안정된 생활'의 위계를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한 인터뷰이는 “학교에서는 과학도에 둘러싸인 상황이고, 여기서 대화하면 농담도 (수업시간에) 배웠던 걸로 하는데 고등학생 때의 친구들을 만나면 뭔가 이질감이 느껴진다. 사실 내가 변한 것 같기도 하지만, 결혼적령기나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친구들이 정말 세속적으로 변한 것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도제식'의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대한 반감 혹은 관료주의적이고 성과위주의 평가 지표에 대한 반감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또는 '내가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상화와 이어진다. 후자가 갖는 한계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개별성이다. 공대생들에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사회구조적 문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대학원 생활은] 정말 힘들고, 주변에 취업한 친구들 보면 정말 부러울 거다. 그런데 취업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은 어쨌든 너는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고 더 큰 걸 바라지 않느냐. 그런데 취업하면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경력)이 끝날 거다.'라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들이 묘사하는 대학원은 다른 직장에 비해 약간 덜 나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무대이거나, 김홍중(2015)의 표현을 빌자면 생존 경쟁을 미래로 약간 연장시켜주는 장소이다. 한 공대생은 “우리학교는 교수님들도 젊으시고 권위주의가 적은 편이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인격을 모욕하실 때가 있다. 친구가 실험실에서 석사과정인데 학부생보다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힘들어했다”는 표현을 했으며,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흔하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진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열정적 탐색과 그것의 획득이 삶

의 원동력 또는 불안의 해독제가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는, 젊은 공대생들이 사회구조적 문제를 완결과 극복이 불가능한 생존의 문제로 의미화하는 자기 서사와 함께 상승적으로 상호작용한다.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하고 싶어지는 것일 뿐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므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을 수 있고 고난과 어찌면 구조적 문제까지도 감내할 수 있다는, 가치와 취향의 상호 강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3) 개발민족주의에 대한 반감

우리가 인터뷰한 8명의 공대생 중 과학기술이 국가와 민족 발전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가치에 동의를 표현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은 개발민족주의의 이상에 대한 거부감 또는 당혹감을 '민족이나 국가를 위해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고 희생을 강요하는 기성세대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자유로운 개인'이나 '성과주의에 집착하는 정부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학문 탐구 과정으로서의 가치'와 같은 언어를 통해 표현했다. 어떤 공대생들은 민족과 함께 개발의 서사를 '종결'짓기도 하는데, 이때에 등장하는 것은 국가주도 개발의 시대를 과거에 한정지으며 현재를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시대로 규정하는 시간 감각, D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경쟁시대'로 표현된 감각이다. 한 인터뷰이는 이를 '배 만드는 산업이면 몰라도, 컴퓨터공학은 국가가 절대로 주도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 뭔지도 모르면서 산업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정부'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현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이 성과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에 대해 종종 강한 거부감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렇다면 경제성장에 기여

하지 않는 과학기술의 가치는 무엇이나고 물으면, 이들은 일견 개인의 호기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다시 '호기심에서 시작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다 보면 의도치 않은 결과로 경제와 산업의 기반이 형성되므로 과학기술은 가치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동원한다. 다른 고민은 거의 없고 '내가 좋아하는 연구를 남에게 안 휘둘리면서 할 수 있을까. 정부 때문에 원자력공학과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를 고민한다는 C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의 답에 '국가에 대한 기여'가 포함되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들은 여전히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어디까지나 비의도적으로 파생되는 기여이지만) 경제와 산업과 국방력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동력—이것은 '기초 역량'과 같은 언어로 표현된다—이 국가와 사회와 인류에 제공된다는 데서 찾는다. D가 분명하게 표현한 '기반적인 기술', '근본된 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믿음은 이공계에 너무나 널리 퍼져있어, 이것에 대해 '그런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나'는 질문을 하는 것은 인터뷰어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마저도 갖고 있다. D의 표현,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을 룱텀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방향에는 누구나 맞다고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해요.”는 한국 이공계에 퍼져있는 상식이다.

공대생들의 인터뷰에서, 이들이 이상화하는 내가 '진정'으로 정말 좋아서 하는 과학/공학의 반대항에 놓인 것이 정부 또는 과학기술을 잘 모르는 예산 관계자가 과학/공학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었음에 주목해보자. 과학기술자들이 경제 발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과학기술계의 담론

주도층이 2000년대 초반 이후 흔히 발화했던 서사는 오늘날 공대생들의 언어적 자원으로 쉽게 활용되며, 권위적인 정부에 대한 반감을 형성한다(Han and Downey, 2014). 한 인터뷰이는 이런 반감을 “국가에서 과학자를 보는 태도가 별로 안 좋아요. 결과주의예요. 왜 한국에서는 노벨상을 못 타오느냐. 주위(다른 국가)에서는 타오다. 타와라. 진짜 상이라는 건, 상을 바라서 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논문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학술지에 논문을 낼 거야’하고 그걸 목표로 연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실험을 즐기고, 이런 지식을 탐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해서 실험을 해서 결과가 탁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끝까지의 보상으로 상이 나오고. 좋은 급의 논문이 나오고. 저는 과학자의 삶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걸 과정이라고 안 보는 거죠. 교수를 평가할 때도 논문 실적이 어떤지 왜 노벨상을 못 타는지 그런 걸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상 타오는 기제도 아니고.”라고 표현했다.

Han(2010)에 의하면 2000년대 초에 일어난 서울대 공대 입학생의 등록 비율 감소나 공학자들의 (일부 직군과 비교해)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의 사회 현상은, 과학기술자들에게 그들이 더 이상 사회로부터 적절한 인정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정부에 대한 집단적 저항감을 불러일으켰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주체성이 탈각된 도구로 자리매김되는 것에 대한 공대생들의 반감이, 철저하게 독립적이고 사회적 책무나 설명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우며 갈등 조정이나 협의 형성의 과정으로부터도 보호되는 공간의 상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의 인터뷰는 보여준다. C는 이러한 상상을 “사람이 살다 보

면, 사회에 이렇게 있다가, 박사과정까지 간다면 사회에서 약간 뜰 거라고 저는 기대”라는 언어를 통해 표현하였다.

이 때 앞서 논의한 진정성의 언어는, 공대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독립적 공간을 단순히 현실 도피 욕구가 빚어낸 상상의 산물이나 특권 의식을 가진 집단의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정말 좋아서 하는 과학/공학, 따라서 진정한 과학/공학이 일어나는 이상적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해석적 자원을 제공한다. D가 표현한, “그냥 '아 이게 왜 이럴까'라고 고민하면서” 축적된 지식이 공학과 실용적 기술의 기반이 되는 시공간을 공대생들은 이상향으로서 그린다. 정부가 나의 현실 도피 욕구나 특권 의식이 아니라 진정한 과학/공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때 공대생들의 정부에 대한 반감은 '선'(the good)에 대한 지향이라는 도덕적 감성을 포함하게 된다. 이 도덕적 감성은 자유로운 나 개인이 정말 좋아하는 과학/공학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의 발전을—비록 그것이 목적으로서 설정되지는 않지만—반드시 과학/공학의 매개를 거쳐 파생되는 부산물로서 규정한다. 결과적으로 공대생들은 이와 같은 가치 체계 안에서 정부의 과학/공학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자유로운 개인의 소망에 대한 지원을 '선'에 대한 요구로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로부터의 지원의 요구가 단순히 근시안적이거나 이기적인 생존 욕구 이상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인터뷰에서 한 공대생은 '나에게는 애국심이 별로 없다', '오직 내가 재미있어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를 내는 연구는 하지 못할 것이고, 국가가 바라는 과학자는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과학기술의 가치는 '국가의 경쟁력, 국력, 국방력과

같은 것의 근원적 동력'을 제공하는 데에 있으며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국내 박사를 양성하고 고급인력 유출을 방지하여 국부를 늘리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이공계 상층부의 특권의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그는 이 서사가 모순적이거나 자가당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어쩌면 본질적으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과학기술의 가치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가치와도 같이 다원적이고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공대생들이 그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언어가 유사하게 수렴한다는 데에 우리는 주목한다. 2017년의 공대생들이 내가 좋아하는 과학기술의 가치를 타인과의 관계망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체계로서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쉽게 활용 가능한 것은, 과학기술이 (어디까지나 의도치 않게)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변형된 개발주의의 언어인 것으로 보인다.

공대생들의 자기-사회 관계 서사가 희망적으로 그리는 엔젤 투자자와도 같은 '정부'의 위치는 공대생들의 도덕적 감성 결핍이나 이들을 붙잡고 있는 '근시안적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서 이해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공대생들이 과학기술과 사회,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서사를 형성할 때 활용가능하게 주어진 해석적 자원의 여전한 빈곤함을 포착할 수 있다. 김상현 (2017:317-318)이 논의한 바와 같이, 민주화 이후 집권한 김영삼,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은 군사독재와의 단절을 정권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의 정권이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사회-정치적 논리는 박정희 정권과 큰 차별성이 없었다. 박정희 정권이 주창했던 과학입국(科學立國)은 21세기의 과학

입국(김영삼)으로, 기술자립(技術自立)은 기술입국의 소신(김대중), 제 2의 과학기술입국(노무현)으로 이어졌다. 과학기술을 민족과 발전에 관한 집단적 이해와 긴밀히 맞물린 것으로서 상상하는 남한의 비전은 민주화 이후 정권의 '과학대통령' 정체성 수행과 함께 여전히 지속되었다. 민주화 이후의 시기에도 정부가 과학기술 담론 생성에서 여전히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 온 역사적 맥락이 개인의 의식과 발화, 특히 자신과 선을 연결하는 자기 서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공계 학생들은 개발주의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개발주의 이후의 언어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내가 좋아하는 과학기술'이라는 공대생들의 일견 저항적인 언어가 국가의 역할을 수정시켰으나 여전히 중심에 놓고, 과학기술의 기획자로부터 조력자로의 정부 역할 변화 정도를 좋은 사회의 모습으로 상상하게 되는 것은 놀라운 결과가 아니다.

5. 결론

앞서 제기한 문제로 돌아가 보자. 오늘날 한국의 청년 세대, 특히 공대생들이 수행하고 서사화하는 것이 가능한, 당장 눈앞의 생존 가치를 대체할 만한 가치란 있는 것인가? 생존 가치에 붙잡히지 않는 가치는 (만약 있다면), 어떤 기제와 과정을 통해 공대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없는 것이 되는가? 공대생들은 오직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연구'의 추구, 그를 통해 내가 불안을 잊을 수

있는 상태에의 도달과 같은 개인적 생존 가치를 추구할 뿐인가? 이들은 김홍중(2015)이 논의한 바대로 그저 '평범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열정노동'을 수행하는 생존주의자인가? 이들은 '자신을 초월한 더 큰 존재와 관련 속에서 자신의 삶의 행로를 위치지우지' 못하고 있는가(최종렬, 2017:256)?

근대적인 진정성을 강력한 권력(신, 가족, 기업체 등)의 압제에 대한 저항을 통해 자신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진정성을 탐색하는 과정이란 자유를 추구하는 형태로서 장려할 만한 것이다(Berman, 1972). 그러나 Spicer(2011)는 진정한 자신을 찾는 과정이 사회적 분투의 방향을 오직 개인적인 것들을 향한 심리학적 고투로 회귀시키며, 따라서 집단적 정치의 가능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적, 내적 갈등의 극복을 위한 노력과 사회적 연대 형성 및 공동선의 추구를 위한 투쟁이 언제나 반드시 길항적 관계에 놓이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우리는 공대생들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과학/공학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열정이 어떠한 역사와 사회 이해와 함께 이를 언어화하는 망의 맥락 속에 놓여있는지를 지적해볼 수 있으며, 그들의 역사와 사회 이해가 언어화되는 과정에서 가용한/하지 않은 서사적 자원이 무엇인가의 문제를 짚어볼 수 있다.

Han(2010)은 2000년대 초반 과학기술자들이 정부와 사회로부터 정당한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인식을 통해 집단적인 분노와 상처, 저항감을 형성하였지만, 그러한 감정의 움직임이 과학기술자의 미래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응집력 있는 목소리나 비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과학기술자 집단 안에서의 계층 분화가 이미 고도로 진행되었으며, 과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과 관련되어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Han(2010)은 이공계 위기 담론의 출현을, 한국의 공학자 정체성이 진화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시금석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른바 '이공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시도로서, 과학기술자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를 제도적, 담론적으로 규정해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이전의 세대가 담당했던 국가의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자로서의 역할이 민주화 운동과 외환위기 이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졌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그런데 과연 2000년대 초의 이공계 위기는 표면상 과학기술자를 위한 사회경제적 보상이 부족한데 대한 집단적 불만 표출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 심층에는 과학기술자 정체성이 더 이상 통합될 수 없는 데서 발생한 혼란, 즉 정체성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었는가? 과학기술자 집단이 전체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을 만한 통합적인 정체성—사회경제적 지위, 책임 의식, 교육 커리큘럼, 인증제도, 전문성, 정부로부터의 인정 등을 통해 구성될 수 있는—의 부재가, 과연 이공계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었는가? 이후 사실상 '통합'이 어려워진 이공계의 정체성 규정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해석은 분명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주목해볼 수 있는 다소 역설적인 현상은 나의 소망, 두려움, 목표를 발화하는 20대의 공대생들로부터 관찰되고 있는 상당히 균일한 도덕과 가치판단, 역사 및 사회 해석의 언어이다.

Han(2010)은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 일어난 세 가지 변화—과학기술을 공식적이고 명시적으로 정의하려는 시도, 이공계 위기

를 포함한 과학기술자들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 공학교육 커리큘럼에서 교양, 리더십, 윤리,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소양 교육을 늘이려는 움직임—를 과학기술자 정체성의 위기 혹은 분화에 대응하여 나타난 사회적 반응으로 해석하였다. 위의 세 가지 움직임은 거시적 수준에서 분명하게 관찰되었던 한국 사회의 변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가 만난 이공계 대학생들이 자기 자신되기와 좋은 과학기술, 좋은 사회를 연결지어 의미화하는 서사에까지는 스며들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만났던 공대생들은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과학기술자의 정의나, 과학기술자 사회 내의 계층 갈등 및 가치의 충돌이나, 새로운 공학교육 커리큘럼을 통한 과학기술자 정체성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의 인터뷰에서 나타난 2017년의 공대생들은 여전히 어느 정도 '통합적'인 정체성과 함께, 과학기술자에게는 자율성과 함께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일종의 도덕적 의식을 집단적으로 형성, 공유,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언어는 언뜻 이공계의 '황금시대'로 불리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교육을 받고서 외환위기 이후 수치심과 섞인 분노, 버림받았다는 느낌(sense of abandonment)마저 느꼈던 전 세대의 언어—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이루어낸 이공계에 충분한 보상과 인정이 주어지지 않았다는—를 떠올리게 한다(Han and Downey, 2014: 134). 그러나 2017년 공대생들의 자기 서사 안에는 약간의 변형만을 거쳐 견고하게 남아있는 개발주의 외에도, 진정한 흥미에 대한 이상화(엄청 흥미로운 분야(...)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인생 걸어볼 만하다)와, 나쁘지 않은 정도의 삶과 안정을 놓칠 수 없다는 강박감(너무나 짧은 길이(...) 인정받

는 길이 되어버렸으니까 되돌아가기 너무 힘들고)이 공존한다. 이들은 '공동체의 운명을 실존의 어깨위에 짊어지고' 있다는 자기 서사를 의식적으로 발화하지 않고 '끝없는 자기 성찰과 각성된 시민 의식'에 대한 책무감 혹은 부채의식을 표현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연구'나 '안정'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삶의 행로가 위치지워지는 과정에서 '자신을 초월한 더 큰 존재'나 선에 대한 지향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한국의 공대생에게 활용가능한 재고 지식, 공적 상징체계 혹은 자기 정체성 형성을 위해 활용가능한 언어 자원은 무엇인가? 공대생들이 '개인의 소망(내가 정말 재미있어 하고, 하고 싶어하는 연구)'을 가치의 영역과 연결짓고자 할 때, 이들은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대체할 만한 대안적 체계를 언어화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언어화하는 과학기술의 가치와 개발주의 담론과의 차이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가 명시적으로 주어진 목표인지, 아니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파생물인지에 있을 뿐이다. 한국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운동에서 등장하였던 언어, 예컨대 노무현 정부의 개발민족주의적인 생명공학 육성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서 생명공학감시연대가 사용한 “논쟁적인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정치·윤리·환경적 영향에 대한 민주적 심의와 적절한 규제”와 같은 가치적 지향을 담은 언어는, 이공계 대학생들이 자기 자신이 되기와 선(selfhood and the good)을 연결지어 논의하는 과정에서 쉽사리 활용되지 않는다(김상현, 2017:339).

어떤 과학과 기술을, 다른 모든 자유로운 개인의 자유로운 지향과 마찬가지로, 설사 그것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는 무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지향과의 비교 속에서 그를 위한 자원 투

자와 규제에 우선순위 및 범위를 논의, 협상, 협의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조정을 거친 정치적 합의의 결과로서 지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한 마디로 시민적 활동으로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 체계는 여전히 이공계 학생들의 자기 서사 형성 과정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런가? 왜 다양한 과학기술과 그 다양한 지향에 대한 민주적 심의나 적절한 규제가 아닌, 과학을 통한 입국, 기술을 통한 자립이 여전히 선한 목표로 인식되는가?

김상현(2017)이 논의하였듯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학생운동과 사회운동 진영의 다수는 성장제일주의에 강력히 저항하였지만, 과학기술과 관련된 개발민족주의적 인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않았거나 사회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1980년대 전통적 마르크스를 수용한 학생운동가와 사회운동가들은 과학기술 자체는 여전히 진보적인 생산력으로 이해했고, 이들이 인식한 문제는 과학기술의 잠재력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중심부 자본주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종속적 관계로 인해 왜곡되는 것이었다. 특히 민족 문제를 남한 사회의 주된 문제로 간주했던 그룹이 중시했던 과제는 민족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중심부에 대한 기술종속에서 탈피함으로써 자립적인 생존, 경제 발전, 번영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과학기술이 민족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 도구라는 개발민족주의의 논리와 급진적 사회운동의 과학기술관은 기본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공대생들은 자신이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담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종종 강한 거부감이나 생경함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렇다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과학

기술의 가치는 무엇이나고 했을 때 이들은 일견 개인의 호기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다시 '호기심에서 시작된 과학기술을 발전 시키다 보면 의도치 않은 결과로 경제와 산업의 기반이 형성되므로 과학기술은 가치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동원한다. 개인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국가가 지원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이공계 학생들의 사고 속에서는 특정하게 경계가 둘러진 지적 호기심이 경제와 산업의 기반이 된다는 '자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도출되어야 마땅한 결론에 가깝다. 과연 그 지원의 경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의 문제를 사회적 논쟁을 거쳐 정치적으로 합의해가는 의사 결정의 절차는 공대생들의 언어로 잘 표현되지 않는다. 개발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공대생들의 선(the good)은, 의도적이지도 주의적이지도 않지만 과학기술의 고유한 성질이 개인의 '진정'한 몰입과 열정을 통해 발현되는 자발적인(spontaneous)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부차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국가와 인류의 발전인 것으로 보인다. 이 선에 대한 지향은, '오직 내가 원하는 연구'와 그에 대해 '적절한 사회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체계 선호라는 그 정의상 개인적이고 폭넓은 사회적 지지를 얻기 어려운 취향을(객관적이고 사회적인 편익이 있는) 가치로서 해석하고 추구하는 주관적이며 집단적인 행위와 언어를 추동한다.

우리가 만났던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의 공대생들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은 '헬조선'이 아니고, 이만하면 나쁘지 않고 괜찮으며, 오히려 경제적 곤란이나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를 경험하는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무한 생존경쟁에 몰두하는 생존주의자나 '무조건 막 착하게 보여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는 '적당주의자'와 마찬가지로 강한 불안

을 느낀다. 그들은 '이제는 이게 인정받는 길이 되어버렸으니까 되돌아가기 너무 힘든' 상황에 대한 압박감, 그래서 때로는 '발악'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표현한다. 이들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구를 찾거나 수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더 중요하게 이들은 통상을 벗어난(extraordinary) 열정이 없다면 과학기술 연구자로서의 경쟁적이고 불안한 삶을 즐기기란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오직 스스로의 호기심과 자발적인 흥미에 의해 추동되지만, 비의도적이고 부차적으로 경제와 산업에 기여할 높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결코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하는 도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개인적 기쁨의 동력이며 사회적 발전의 원천이므로 (비의도적이고 부차적으로 국익에 기여할 만한) 과학기술 연구에 새벽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진정으로 매진하는 주체가 된다.

“제가 한 친구를 봤을 때, 그 친구는 (화학) 반응을 돌려놓으면 세 시간 있다가 결과를 찾고 물질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 친구랑 같이 밴드를 했었는데, 개가 랩실 다니다보니까 밤 11시 반에 모여서 연습을 했어요. 모여서 새벽 3시쯤 연습 끝나면 개는 다시 랩실로 가요. 교수님이 불러서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걸 봤어요. 그 정도면 '모든 걸 포기하고 대학원에 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 정도로 자기가 하고 싶은 뭔가가 있으면, 걱정도 있고 하겠지만, 저 정도 확신이 있으면 모든 걸 포기하고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터뷰 2017.10.13, 에너지공학과 학생 D)

참고문헌

- 교수신문(2015. 3. 16),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도입뒤 ‘공학계열’ 정원 비중만 늘었다」.
- 김상현 (2017), 「박정희 정권 시기 저항 세력의 사회기술적 상상」, 『역사비평』 제120호, 316-346쪽.
- 김홍중 (2007), 「삶의 동물/속물화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귀여움: 87년 에토스 체제의 붕괴와 그 이후」, 『사회비평』 제36호, 76-96쪽.
- 김홍중 (2009),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한국사회학』 제43권 제5호, 1-29쪽.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제49권 제1호, 179-212쪽.
- 김학준 (2016), 「질식의 예감」, 『문화과학』 제3호, 309-319쪽.
- 김효민·김성은 (2015), 「SW(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윤리적 체제와 기술 시티즌십」, 『과학기술학연구』 제12호, 263-301쪽.
- 대학교육연구소 (2016) 『대교연 통계(기본)』. 대학교육연구소.
- 서동진 (2010),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해부학 혹은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문화과학』 제3호, 37-54쪽.
- 오찬호 (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개마고원.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세대: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레디앙.
- 이우창 (2016), 「헬조선 담론의 기원: 발전론적 서사와 역사의 주체 연구, 1987-2016」, 『사회와 철학』 제10호, 107-158쪽.

- 전상진 (2008), 「자기계발의 사회학: 대체 우리는 자기계발 이외에 어떤 대안을 권유할 수 있는가?」, 『문화와 사회』 제5호, 103-140쪽.
- 최종렬 (2017), 「'복학왕'의 사회학- 지방대생의 이야기에 대한 서사분석」, 『한국사회학』 제51권 제1호, 244-293쪽.
- Abelmann, N., Park, S. and Kim, H. (2009), "College Rank and Neoliberal Subjectivity in South Korea: The Burden of Self-Development." *Inter-Asia Cultural Studies*, Vol. 10, pp. 229-47.
- Berman, M. (1972), *The politics of authenticity: Radical individualism and the emergence of modern society*. London: Verso.
- Cech, E. and Blair-Loy, M. (2010), "Perceiving glass ceilings? Meritocratic versus structural explanations of gender inequality among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Social Problems*, Vol. 57, pp. 371-397.
- Cech, E. (2013), "The (Mis)Framing of Social Justice: Why Meritocracy and Depoliticization Hinder Engineers' Ability to Think About Social Injustice", in Lucena B. ed., *Engineering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Critical Explorations and Opportunities*, pp. 67-84, New York: Springer.
- Comaroff, J. and Comaroff, J. (2000), "Millennial capitalism: first thoughts on a second coming." *Public Culture*, Vol. 12, pp. 291-343.
- Geertz,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 Hacker, Sally. (1990), "The Culture of Engineering: Woman, Workplace, and Machine", in Smith D. and Turner S. eds., "*Doing It the Hard Way*": *Investigations of Gender and Technology*, pp. 111-26. Boston, MA: Unwin Hyman.

- Han, K. (2010), “A crisis of identity: the Kwa-hak-ki-sul-ja (scientist-engineer) in contemporary Korea.” *Engineering Studies*, Vol. 2, pp. 125-147.
- Han, K. and Downey, G. (2014), *Engineers for Korea: Synthesis Lectures on Global Engineering*. San Rafael, CA: Morgan and Claypool.
- Hughes, T. (2005), *American Genesis: A Century of Invention and Technological Enthusiasm, 1870-197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endall, L. (1999) “The Nerd Within’: Mass Media and the Negotiation of Identity among Computer-Using Men.” *Journal of Men’s Studies*, Vol. 99, pp. 353-67.
- Kim, H., Cho, Y., Kim, S. and Kim, H. (2017), “Women and Men in Computer Science: Geeky Proclivities, College Rank, and Gender in Korea.”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2, pp. 1-23.
- Lerner, M.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fundamental delusion*. New York: Plenum Press.
- Margolis, J. and Fisher, A. (2002), *Unlocking the Clubhouse: Women in Computing*. Cambridge, MA: MIT Press.
- Nye, D. (1994), *American Technological Sublime*. Cambridge, MA: The MIT Press.
- Schutz, A. (1970), *On Phenomenology and Social Relations*, translated by George Walsh and Frederick Lehner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picer, A. (2011), “Guilty Lives”. *Ephemera*, Vol. 11, pp. 6-62.
- Taylor, C. (1989),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Turkle, S. (1984), *The Second Self: Computers and the Human Spirit*. New York: Simon and Schuster.

논문 투고일	2017년 10월 27일
논문 수정일	2017년 11월 21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17년 11월 21일

The 'Authentic' Pleasures of Engineering Students

Kim, Hyomin · Cho, Heesoo

ABSTRACT

Science and engineering college students, so-called engineering students, account for nearly half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Existing research on younger generations poses a question of young generation after the financial crisis as a 'genuine' survivalist who carries out 'passionate labor' to pursue 'ordinary life' and 'banal stability'. They are diagnosed as failing to "locate the course of their lives in relation to a larger being that transcends self". But is there a value that can replace the survival value in front of us today, which is possible to be practiced and narrated by the young generation of Korea, especially the engineering students? What value (if any) is not captured by survival value, and what mechanisms and processes can and can easily be used by engineering students?

Our research uses interviews conducted at one research-centered science and engineering university in a local metropolitan city, Korea. In conclusion, we emphasize that a transformed version of developmental nationalism, in which individual scientists/engineers pursue their 'authentic' passion and unintentional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through byproducts of their research, exerts strong influence upon the formation of young engineering students' narratives linking their selfhood and the good.

Key terms | engineering students, identity, developmental nationalism, survivalism